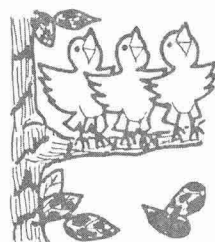


# 참새가 안겨준 福



(주) 대경요업 안 정 미

내가 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땐 모든것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졌다. 직원들이 다쳐서 의무실을 찾을 때면 정성껏 치료하고 간호를 해 주면서.

어느 날인가! 의무실 문을 연 현장의 생산부 직원의 손에는 참새 한마리가 들려져 있었다. 들려진 참새의 다리를 보니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 남자직원은 나에게 참새를 내밀어 보이면서 치료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상처난 참새의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고난 후 그 직원은 나보고 얼마 안 있으면 곧 참새가 박씨 한알을 물어다 줄 것이라고. 우리는 웃었다.

어쩐지 마음이 흐뭇하다.

정말 나에게 참새가 복을 갖다줄까하며 맹랑한 요행도 꿈꿔보며 잠시동안이라도 그 대가를 바라보았던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다.

그때에 참새에게 주었던 나의 사랑에 작은 기쁨도 안아본다.

그런데 이처럼 지난날의 작은 일들이 잔잔히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요즈음 흐트러져 있는 나의 생활을 채찍질하기 위함인가 보다.

직원들이 치료를 청해 올때면 앞서는 짜증을 스스로 느껴본다. 이러면 안되지 하면서.

새로 입사한 의무실 동료의 환자직원에게 대한 정성과 친절을 훑쳐 보면서 짜증부터 솟구쳐오는 나를 바라본다.

나도 처음 입사 했을 땐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내가 맡은 임무에 충실해야지.

언젠가 참새에게 주었던 따뜻하고 정성어린 손길로.